



# 한국의 차(茶)



글/ 김무열 평화방송 편집위원

차(茶)의 학명은 티아 사이넨시스(Thea Sinensis)라 하여 중국이 원산으로 되어 있다. 차나무는 큰것이 2m 정도이며 큰 나무 밑의 반음달에서 자란다. 중국, 일본, 한국, 스리랑카, 인도북부지방에 자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차나무가 전래된 것은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보면 흥덕왕 3년(서기 828년) 12월에 당(唐)나라에 사신(使臣)으로 파견되었던 김대립이 귀국할 때 종자를 가져와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 근방에 심어 번식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차는 이미 서기 632~646년 경 신라에서 유행했다고 하며 가야국의 허수로왕비가 인도에서 시집을 때 가지고 왔다는 설도 있다. 해상국립공원 남해군 남쪽에 절이 있는데 그곳에 허수로왕비가 그곳에 상륙한 것을 기념하여 건립했다는 연대를 알 수 없는 아주 오래된 조그마한 탑(塔)이 서있는데 남해군수(黃基俊)와 일가인 남해문화원장 韓碩鉉 선생과 산림과장(李秉咸)과 산림과에 15년이나 근무했다는 김부중 군직원에 의하면 언제부터인가 차나무가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고려시대에는 재상이나 장군들이 서거(逝去)하면 임금의 부의로 차를 하사(下賜)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조시대에 와서는 차를 엽전모양으로 단단하게 만들어 상시 휴대하고 몸살이나 감기에 달여 먹었다고 한다. 이것을 전차(錢茶)라고 했다. 이와 같이 성행했던 차 생활은 불교에 대한 압박과 함께 쇠잔하고 말았으나 요사이 일부에서 국산 차 마시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

고 있다.

현재 지리산 남쪽에 야생차밭이 산재해 있는 것을 필자는 확인했다. 작설차(雀舌茶)라고 하는 것은 차잎의 크기가 참새의 혀만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이것은 우전차(雨前茶)를 말한다. 우전차란 비가 오기 전에 딴 차라는 뜻이 아니고 곡우절(穀雨節, 4.20~4.21일) 전에 딴 차란 뜻이며 차의 첫순이 5mm~1cm 정도의 크기이다. 또 죽노차(竹露茶)의 의미는 대나무에서 흘러내린 이슬을 먹은 차라는 뜻으로 최상품의 차라 할 수 있다.

좋은 차나무는 하동군 화개면(花開面)의 섬진강 유역에서 자생하고 있다. 실제로 차나무가 성장하는 5~7월 경의 섬진강 유역에는 아침저녁으로 안개가 자욱하다. 그래서 이곳이 차의 명산지로 예부터 유명하다.

1991년에 중국의 남부지방인 四川省에 갔을 때 그곳 일대가 유명한 차산지인것을 확인했다. 四川省은 인구가 1억이 넘고 유명한 곡창이며 일년내내 농사가 가능하며 언제나 안개가 끼어있어 좋은 차가 생산되고 있다. 고려말의 충신 정몽주(鄭夢周)는 그의 생애를 읊은 시 가운데 報國無效老書生 · 茶成癖武世生幽齋獨 · 風雪夜 受聽石昇松風聲(보국에 공효없는 늙은 서생이 차 마시는 버릇되어 세정을 모르도다. 눈보라 치는 고요한 밤 홀로 누웠으니 돌치슬 물끓는 소리 정답게 들리도다)는 시가 있다. 이 시를 통하여 보면 그가 고독한 환경 속에서도 차에 대한 애착심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우리나라 차문화(茶文化)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은 초의선사(草衣禪師)를 꼽을 수 있는데 그의 저서에는 동다송(東茶頌)과 다신전(茶神傳)이 있다.

차를 끓이는 물에 대하여 육우(陸羽)는 말하기를 “차란 물의 신(神)이며, 물은 차의 체(體)이므로 물이 아니고는 그 신기(神氣)를 드러내지 못하며, 또 정차(精茶)가 아니고는 그 체를 나타내지 못한다. 산정(山頂)의 샘물은 맑고 가볍고 수하(水下)의 샘물은 맑고 무겁다. 석중(石中)의 샘물은 맑고 달고, 사중(砂中)의 물은 청열(淸冽)하며 토중(土中)의 샘물은 담백하다. 또 황석(黃石)에서 흐르는 물은 가(佳)라 하였고 청석(靑石)에서 흐르는 물은 쓰지 말 것이다. 흐르는 물은 안정시켜 쓰라”고 했다. 그리고 그늘진 곳의 물이 양지바른 곳의 물보다 낫다고 말하고 진수원(眞水源)은 맛이 무미라하며 진수(眞水)는 무취(無臭)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우물물은 차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산수(山水)가 제일 좋고 다음이 강수(江水) 셋째가 우물물이라고 했다. 그리고 차를 끓이는데 중요한 것이 숯인데 백탄(白炭)이 좋다고 기록하고 있다. 백탄보다 좋은 것은 오동나무숯불이 있는데 약을 끓일 때에도 오동나무숯불을 사용한다. 오동나무를 추(楸)라고 하는데 오동나무에는 곱팡이나 잡벌레를 죽이는 향균 살충성분이 많다.

옛날사람들이 오동나무숯불이 제일 좋다고 한 것은 이와 같은 과학적 약리효능을 오랜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커피를 마시면 성질이 거칠어지며 기억력이 떨어지고 암을 유발시키는 해로운 성분이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커피 안마시기운동이 이미 수년전부터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

차에 함유된 “디페인”이라는 성분은 사람을 온유하게 하고 정신을 편안하게 하며 잠을 쫓고 기억력을 높이며 몸안에 있는 지방을 중화해버림으로, 사람이 비대한 것을 방지해 준다.

나는 중국에 7번이나 갔다. 그간 약 4개월을 체류했는데 실제 어디에 가나 차가 있다. 그들은 자기 차와 차잔을 가지고 다닌다. 그들은 돼지뼈 다린 물이 중국 요

리의 기본이 된다. 내가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비대증 환자를 한사람도 보지 못했다. 이것은 그들이 차를 애용하기 때문일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지금 차는 세계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날로 날로 애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일본에서도 지금 우롱차(烏龍茶)가 대유행하고 있다. 일본돈 200엔을 넣으면 자동판매기에서 우롱차(烏龍茶) 켄 한통이 나온다. 이것은 반발효차로서 특히 고기를 먹고 난뒤나 비대한 사람이나 늘씬한 몸매를 원하는 사람들과 부인들에게 애용되고 있으며 연간 판매량이 3000억엔(약 1조 8000억원)에 달한다고 하며 알코올도수가 약한 우롱차술도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중국, 스리랑카, 인도, 네팔 등은 유명한 차의 산지로서 이들나라에서는 차재배가 국가시책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수출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육식, 과식, 미식으로 인한 비대증으로 성인병이 염려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건강식품이다. 우리나라의 야생작설차(野生雀舌茶)는 농약이나 비료로 재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생작설차(野生雀舌茶)는 600g에 일본돈 3만엔 약 18만원에 팔리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토질은 古生代에 속해있으므로 다른 어떤 나라의 차보다 향기가 좋다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도 국가시책으로 차재배를 장려했으면 UR에 대비할 수 있는 훌륭한 농산물이 될 것이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과 세종대왕지리실록지(世宗大王地理實錄志)에 의하면 우리나라 울산지방에도 차밭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내가 회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가 있는 서울 홍농앞에 임업연구원에도 한그루의 차나무가 있는데 동사하지 않고 월동을 거둬하면서 11월에는 희고 향기가 좋은 꽃이 피고 있다.

남쪽의 차보다 북쪽의 내한성(耐寒性) 차가 그 향기와 맛이 더 좋다고 한다. 내한성 品種을 육성하면 강원도 강능지방까지 차재배가 가능할 것이다. 차는 林下栽培가 가능하므로 山林廳에서 山地資源植物로 정책적으로 재배해 보면 좋을 것이다. 